



스위스재보험시그마 보고서 - 은퇴 후 생활을 위한 혁신적 방안

Contact:

Dr David Laster,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587

Dr Lukas Steinmann, Zurich
Telephone +41 43 285 4687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취리히, 2008년 10월 21일 - 스위스재보험은 최근 발간한 시그마 보고서에서 여러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및 기업이 퇴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시그마 보고서에서는 연금, 장기요양보험, 역모기지 등의 솔루션을 다루고 있으며 퇴직연금 리스크를 아웃소싱하는 방안 및 기존 퇴직관련 담보를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기업 및 보험사가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있어 재보험 및 자본시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혁신적 솔루션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솔루션을 채택하는 경우 국민들은 은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연금 - 퇴직자를 위한 솔루션

종신연금은 퇴직자에게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의 연금을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장기생존 리스크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이에 비해 변액연금은 보다 유연성이 높은 상품으로 퇴직자들에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며 그 지급액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실적에 연동된다.

시그마 연구의 공동저자인 마이크 배른쇼우(Mike Barnshaw)는 변액연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 및 일본에서 변액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변액연금은 퇴직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승 시장 잠재력 및 유연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액연금은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 및 유럽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내 변액연금 총 매출액은 향후 10년간 매년 7~9% 성장하여 2018년에는 4~5 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에서도 변액연금 자산규모가 2003년 1 조 1 천억 엔에서 2008년 15 조 8 천억 엔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 및 역모기지 - 퇴직자를 위한 또 다른 솔루션

평균적으로 65 세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그들의 생존기간 동안 전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을 갖는다.

장기요양보험은 전문요양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장기요양 서비스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노인인구가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개입해야하는 정부측에서는 민간시장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실제 활용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최대시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큰 인기를 모으는 한편 그 외의 국가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역모기지도 점차 퇴직자를 위한 매력적인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그마 연구의 공동저자 루카스 슈타인만(Lukas Steinmann)은 “역모기지를 통해 퇴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은 대개 자신의 보유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다) 주택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주택 소유주는 일시불 또는 평생에 걸친 정기적 지급 및 용자 제공 등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이들 방법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다. 슈타인만은 “상속인이 용자를 상환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주택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대출금액과 미지급이자를 합친 금액이 주택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개입, 그 차액을 담보하게 된다.

기업의 종업원 퇴직연금 의무 관리에 보험사도 일익을 담당

기업의 입장에서 퇴직연금 지급에 따른 소요비용과 관련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그마 보고서는 퇴직연금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험사의 단체연금상품을 구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퇴직연금 리스크를 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안을 택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장기생존, 자산가치 및 종업원 행태와 같은 복잡하고 헤지(hedge)하기 어려운 리스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 틀 안에서 단체연금의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1 조 1 천억 파운드 규모에 달하는 영국 보험시장 내 민간부문 확정급여연금제도 잠재수요 중 지금까지 실제로 활용된 수요는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재보험 솔루션

시그마 연구는 변액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재보험사와 팀을 이루어 상품설계, 리스크 공유, 상품출시 자금조달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보험사와 팀을 이룰 경우 업계 분석가, 신용평가기관 및 규제당국에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산정 및 리스크 헤지(hedge)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퇴직연금 담보와 관련해서도 보험사가 재보험사와 제휴함으로써 기존 사업영역의 담보를 재보험사에 이전하거나 보험계약 관리를 재보험사에 아웃소싱하거나 또는 투자리스크는 보유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재보험하는 순수 장기생존 리스크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자본 시장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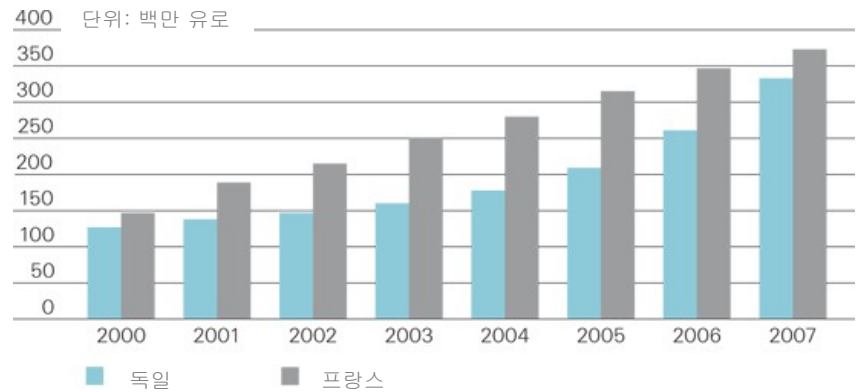
시그마 연구의 또 다른 공동저자인 데이비드 래스터(David Laster)는 장기생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험사, 퇴직연금 후원사 및 정부가 장기생존에 대한 자신들의 노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헤지(hedge)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자본시장에 있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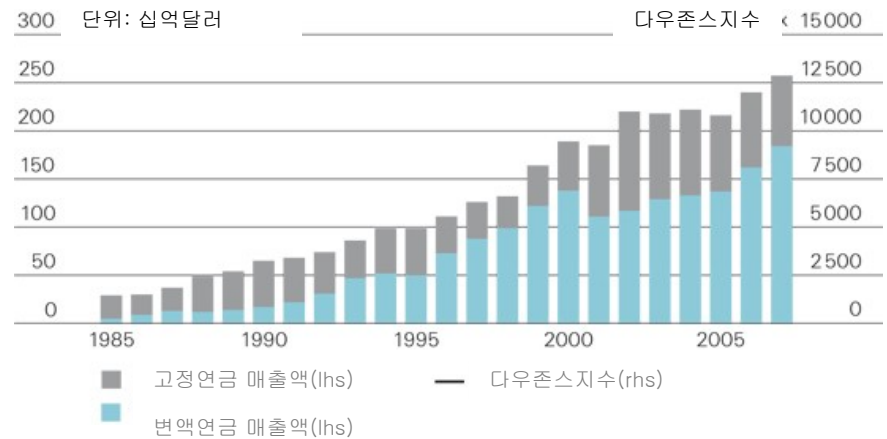
정부는 노인인구의 퇴직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자 노년층을 위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솔루션을 고려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기업이 자사 종업원들 중 원하는 사람만 퇴직연금저축제도(retirement savings plans)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신에 종업원들을 자동으로 퇴직연금저축제도에 가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물론 이 경우에도 종업원들 중 원치 않는 사람은 퇴직연금저축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충분한 저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정부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연금저축액에 대한 세제혜택, 퇴직생활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의 퇴직연금 전용 제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본 생활비 조달을 위해 연금자산 중 최소 비율을 연금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조 민간 장기요양보험(독일, 프랑스)



고정연금 및 변액연금 매출액(미국)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2'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9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